특별인터뷰

혜총 대종사 전 조계종 포교원장

“부처님은 우주 제일의 ‘메모리왕’”

첨단 과학기술의 본질이 곧 불교
‘일심(一心)’과 ‘화엄(華嚴)’의 이치
수십억 겁 저장 ‘메모리 왕’ 부처님
반도체, 팔만사천 번뇌 형상화 그릇
이건희 회장에게 전한 30년 전 화두
“AI시대, 상생과 분배의 지혜 필요”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혜총 대종사는…1953년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3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승가대학과 범어사 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대한불교신문 사장,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제5대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인류의 일상까지 바꾸는 초과학의 시대다.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 칩에 방대한 정보가 저장되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세상을 움직인다. 고도의 기술이 삶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온 첨단 물질문명의 시대에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조계종 포교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 감로사에서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혜총 대종사는 첨단 과학기술이 불교의 ‘일심(一心)’과 ‘화엄(華嚴)’의 이치와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8월 10일 감로사에서 혜총 스님을 만나 AI 시대에 바라본 부처님의 지혜, 그리고 30여 년 전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전했던 반도체에 관한 일화를 들었다.

반도체 본질은 ‘마음의 형상화’

“스마트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작은 기계 하나에 전화기, 사진기, 시계, 수만 권의 책, 그리고 전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마음을 씁니다. 그 생각하고 마음 쓰는 작용을 과학의 힘을 빌려 ‘물질’ 속에 집어넣어, 인간을 대신하게 만든 것이 바로 반도체 칩이고 인공지능입니다.”

혜총 스님은 현대 과학의 핵심인 반도체의 본질을 ‘마음의 형상화’로 정의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즉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는 가르침이 과학기술을 통해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이 ‘반도체’라는 설명이다.

“마음 씀씀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분화되면 하루에 5만가지, 불교식으로 말하면 8만4000가지 번뇌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기계나 물질에 조금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과 마음으로 이 우주의 이치와 기억을 온전히 담아내셨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메모리 왕’이십니다.”

‘메모리 왕’ 부처님을 만나다

스님이 부처님과 반도체적 기억의 연결 고리를 직관적으로 깨달은 것은 1988년 무렵이다. 당시 스님은 외화 낭비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25년 동안 해외에 나가는 일을 마다했다. 은사 자운 스님이 국제 행사에 함께 가자고 여러 차례 권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어느 날 자운 스님께서 저에게 ‘혜총아, 이제 외국에 좀 가거라. 금생만 좋은 게 아니고 내생도 좋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내생도 좋은 것’이라는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경〉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스님은 부처님이 수십억 겁의 전생 동안 행한 모든 선한 공덕과 수행의 과정, 수많은 생명으로서의 체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스란히 저장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중생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의 경험을 밝은 의식으로 저장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존재. 지혜가 곧 완벽한 ‘메모리’임을 깨달은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은사에게 삼배를 올리고 비로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회고했다.

“진짜 꽃과 희망은 반도체”

스님의 혜안은 훗날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과의 인연으로도 이어졌다. 1994년 범어사 부주지 소임을 맡고 있던 스님은 부산에서 열린 삼성자동차 기공식에 참석했다. 터 닦기 염불을 주관한 인연으로 이건희 회장과 식사를 함께하게 됐다. 정관계 인사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스님은 이 회장에게 물었다.

“여기에 삼성자동차를 굳이 시공해야 합니까.” 뜻밖의 질문에 분위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 회장은 스님에게 반문했다. “자동차 사업은 선친(이병철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자동차 사업은 삼성의 꽃과 희망입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독일이 1위, 미국이 2위, 대만이 3위를 선점하고 있었고 한국과 일본은 4~5위권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엄청난 자본이 끊임없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스님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삼성의 진짜 꽃과 희망은 자동차가 아니라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세상이 발전할수록 꼭 필요한 것이 반도체입니다. 빚을 내서라도 더 연구하고 생산한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가 삼성과 우리나라를 반드시 부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삼성은 틀림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당시 자동차 산업에 쏠려 있던 시선을 반도체로 돌려야 한다는 제안이었다.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들어 그 이유를 덧붙였다.

“부처님이야말로 우주 제일의 기억력 왕이십니다.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 나오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즉 작은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하나에 엄청난 정보가 담기는 것 역시 이와 같은 이치로 볼 수 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혜총 스님은 벅찬 감회를 숨기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을 보니 너무나 기쁩니다.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결단을 존경합니다. 대를 이어 반도체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용 회장과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공간 초월하는 화엄의 과학

혜총 스님은 불교가 과거의 사상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과학을 선도하는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을 다 담고 실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메모리이고 AI입니다. AI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갖춰져 있는 우주의 이치를 인간이 발견해 과학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이 엄청난 과학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좋은 생각’을 선택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이 기술을 써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 멀고 가까운 것, 있고 없는 것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하나로 통합니다. 중생은 이것을 자꾸 분별해 편을 가르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시공간마저 하나입니다.”

기업 경영의 해답 ‘협동과 분배’

혜총 스님은 첨단 산업의 눈부신 성과 이면에 반드시 ‘지혜로운 분배’가 뒤따라야 한다며 ‘담비’의 생존 방식을 예로 들었다.

“작은 담비 일고여덟 마리가 힘을 합치면 자신보다 훨씬 큰 동물을 잡습니다.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협동하는 것이지요. 사냥에 성공하면 이 담비들은 먹이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정확한 분배가 보장되기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바쳐 협동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오늘날 반도체와 AI 산업이 거두는 이익 역시 이와 같은 공정한 분배 정신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가나 소수의 연구진이 이익을 독점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땀 흘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헌신과 기여도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조직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다.

다만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정한 분배는 아니라고 했다.

“인생에 덤은 없습니다. 땀 흘리고 기여한 만큼 정당한 성과급이 주어져야 일할 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사회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당한 보상 이후의 자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의 지혜요, 나눔 정신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첨단 과학의 시대. 혜총 스님은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이며,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지혜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당부로 인터뷰를 마쳤다.

